

강남구 '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' 실현할 민선 7기 공약 확정

- “구민 삶 관련 모든 분야 새롭게 디자인”
- 4개 분야 64개 사업 4년간 1조9천182억원 책정



정순균 강남구청장

서울 강남구(구청장 정순균)가 '모두가 행복한 도시, 강남'의 실현을 위해 ▲ 미래형 매력 도시 ▲ 필(必) 환경 도시 ▲ 포용 복지 도시 ▲ 공감 행정 도시 등 4개 분야, 64개 사업을 공약으로 확정했다. 강남구는 지난해 6월 출범한 '강남 뉴디자인위원회'의 자문과 강남구 주

민이 참여한 '주민배심원단'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사업비 1조9천182억원을 4년에 걸쳐 투입한다.

우선 '미래형 매력 도시' 분야는 강남 거리 디자인, 강남 페스티벌 확대, 365일 FUN&PAN 강남, 강남 스타트업(Start-up) 생태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.

'필(必) 환경 도시'는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 강남 만들기, 강남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주요 사업이다.

출산, 보육, 사회적 취약자 배려 등 '포용 복지 도시'를 위해 국·공립어린이집 확충, 맞춤형 보육 지원, 강남구 초등생 온종일 돌봄 실시,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 등 17개 사업을 추진한다.

마지막으로 구민이 공감하는 가치 행정 구현, 강남 교육 비전 뉴 디자인 등 소통이 원활한 '공감 행정 도시'를 위해 6개 사업을 펼친다.

정 구청장은 "30년, 50년 앞을 내다보며 도시 공간, 주거환경, 교통뿐 아니라 지역산업과 경제·문화·관광·복지·교육·재정 등 57만 구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변화시켜야 한다"고 말했다. ●

